



오창설 저 | CUP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

◎ 오창설 (사립대학 교수)

그리스도인의 돈 문제는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이 책의 저술 동기에 대해 돈이 우리의 일상과 영적 생활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돈에 매이거나, 혹은 부정하는 극단에서 벗어나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돈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저자는 회계학 교수이자 돈에 대해 전문가로서 돈에 소명을 가지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는 돈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서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과 같은 전문인 사업자들의 역할과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폴 스티븐스가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에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나 세상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 구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성도들은 그들 고유의 사역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사역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비될 때에 목사나 평신도가 다같이 고귀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2장은 돈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상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조명하고 있다. 오늘날 돈은 모든 가치평가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균형잡힌 관점을 소유하기 위해

한 재정관리라는 것이다. 특히 베푸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적 평안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4장에서는 돈이 주는 영적인 풍성함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두 가지 이유를 가족들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과 하나님 사역에 대한 동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창조 원리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는 돈을 저자는 강조한다. 아울러 재물을 소비하는 두 가지 동기를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물건을 구입하기 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볼 것과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재물이 가져오는 한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것을 충고한다. 재물의 두 번째 용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곧, 헌금과 나눔 두 가지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파 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헌금 외에 교회안의 성도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나눔은 모든 성도들이 훈련이 되어야 하는 실천원리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구제에의 요청은 오늘날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필수적이다(신 15:11; 히 13:16; 딤후 6:18). 결국 자신의 필요에 해당하는 한 그릇, 두 그릇은 자신이 먹되 그 이상은 이

웃에게 베풀려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록 축한 줄로 알고(딤후 6:8)" 지켜하면서 나누어줄 수 있는 영적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재정관리이다.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 성경의 원리와 저자의 경험을 통해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특히 가계부는 영적 바로미터로서 부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자녀들에게 바른 재정 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부모의 모범과 진정한 소비습관 교육을 강조하면서, 탐닉적인 소비나 쇼핑 중독 등 돈 쓰는 범위와 과 소비의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할 것과 돈이 주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의를 드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5장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 특히 재테크와 투자요령, 보험 가입, 노후대비에 이르기까지 지혜로운 재물사용에 대한 재정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이 장에서 저자는 재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직업적 능력을 유지할 것과 수입과 소비의 재정적 균형을 유지할 것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그 외 식비와 경조사비, 사교육비, 통신비 등 가정에서의 불요불급한 소비항목들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행복한 소비의 비결로서 절



프란시스 쉐퍼 Dr. Francis Schaeffer's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 프란시스 쉐퍼 박사의 <사구 사상과 문화의 응성과 쇠퇴>에 대한 대서사 장편 다큐멘터리"

프란시스 쉐퍼 최고의 역할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과 지성인이 알아야 할 세계관, 문화, 철학, 정치, 예술, 종교에 관한 역사적 필름

2 DISC
 Total Running Time
 5시간 20분

Amazon customer 리뷰

"민일 담씨가 기독교 방송에 하나 쉐퍼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본 적이 없다면, 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매우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쉐퍼 박사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과거의 철학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정신이 길과를 놓는다'라는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다. 이 DVD는 종교적, 역사적, 철학적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화가 될 것이다." ☆☆☆☆☆

"이것은 프란시스 쉐퍼 최고의 일적이다. 쉐퍼는 여기서 차분하고, 능숙하고, 흥미있게 역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는 역사가 단지 아무 의미가 없는 끝없는 흐름이 아니라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 영화는 목회자와 신학생은 물론 일반 평신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막대한 교재일 뿐 아니라 역사나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특히 철학 기독교의 관점에서 문화의 역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이 영화는 역사의 개관에 대한 지식, 그 이상을 담고 있다. 쉐퍼의 역사와 철학과 신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화가 1970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에 대한 이해와 현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 지식과 통찰을 준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는지를 본다. 이로 인해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

Language : English / Subtitle : Korean / Colour / 320 min

Disc1

- 에피소드 01 로마시대 (The Roman Age)
- 에피소드 02 중세 (The Middle Ages)
- 에피소드 03 르네상스 (The Renaissance)
- 에피소드 04 종교개혁 (The Reformation)
- 에피소드 05 혁명시대 (The Revolutionary Age)
- 에피소드 06 과학시대 (The Scientific Age)
- 에피소드 07 비이성의 시대 (The Age of Non-reason)
- 에피소드 08 파편화 시대 (The Age of Fragmentation)
- 에피소드 09 개인의 평화와 부요의 시대 (The Age of Personal Peace & Affluence)
- 에피소드 10 단 하나의 대안 (Final Choices)

Disc2

Bonus Interviews

- 인터뷰 1 세상을 다시 살리기 - 고종과 필름이 함께 하는 날
- 인터뷰 2 리브리와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

그런 이후 마지막으로 도전한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앞으로 진정으로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간다. 우리의 생애 역시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다. 재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영원한 성공을 주지도 못한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에 가치를 두고 살아서 꽤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은 그 생명이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재산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장병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 23:5)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하다. 돈을 하나님을 위해 잘 쓰는 것은 곧 신앙의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의 축복과 내세에서의 축복이 함께 약속된 돈의 사용의 비밀에 대해 알려 주는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서 함께 도전받기를 소망한다.

제이는 소비생활을 할 것과 물건을 사기 전까지 한 달을 기다리는 '한 달 규칙',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중고품 구입요령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지혜와 통찰력이 독자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 꼭 알아야 할 투자자의 원리로서 여섯 돈 투자와 위험에 대한 고려, 분산 투자 등 일반적인 투자원리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 투자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적 투자에 있어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돈을 미리 떼어 놓아 현금과 여러 은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려고 권면한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비결이며 영적 평안함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축과 투자가 믿음이 부족한 행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후 아이들의 교육이나 미래의 소득 감소, 우발적인 일들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저축에 투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동기와 자세라는 것이다. 정당한 목적 없이 돈만을 축적하려는 투자는 막론 무상을 섬기는 것일 수 있지만 저축, 투자, 보핌, 교회의 건축헌금 등과 같이 개인이나 교회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행위가 아니라 지혜롭고 합리적인 자세라고 강조한다.

6장은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영적 평안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재물을 단순, 소박하게 대함(Simple Life)으로써 재물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한다. 불필요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작은 물질이라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다. 재물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주지만 평안은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오장성 현재 서브컬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며 대한장터복지회 이사이다. 저서로는 <살기 좋아하는 행복학>, <사무관리론>, <자원봉사자의 이론과 실제> 외 다수가 있다. 현재 대구지방 NF 이사이자 기독교윤리전문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대구 동도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